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만흠
전화 02-2204-4201

보도자료

2023. 11. 29.(수)

제목

재벌 3세 등을 사칭하며 약 30억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과 공범 구속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오늘(11.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유명 기업인의 숨겨진 후계자, 美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 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 제공」 등을 빌미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 A와 공범 B를 구속기소하였음
- 검찰은 피의자 A에 대한 사기 사건을 경찰에서 구속 송치받아 직접 보완수사하여, A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고급 주거지, 외제차량을 빌리는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누어가진 피의자 B의 존재를 밝혀내 구속하고,
 - 피의자 A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 4명에 대한 약 2억 4천만 원 사기, ② 남성 주민등록증 위조·행사, ③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한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 도급계약서 위조·행사 등 범행을 추가로 규명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하였음
-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협의하여 공범 및 피의자들의 여죄 관련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1 피의자

- A [여, 26세, 직업 없음, 재벌 3세 사칭, 美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행세]
- B [남, 26세, A의 경호원 행세]

2 피의사실 요지

- ①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3. 3. ~ 10.경 피의자 A는 국내 유명 기업 甲의 숨겨진 후계자 등 행세를 하고, 피의자 B는 그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약 27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② 피의자 A는 '22. 4. ~ '23. 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약 3억 5,800만 원을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피의자 A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 '23. 6.경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고,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23. 7.경 甲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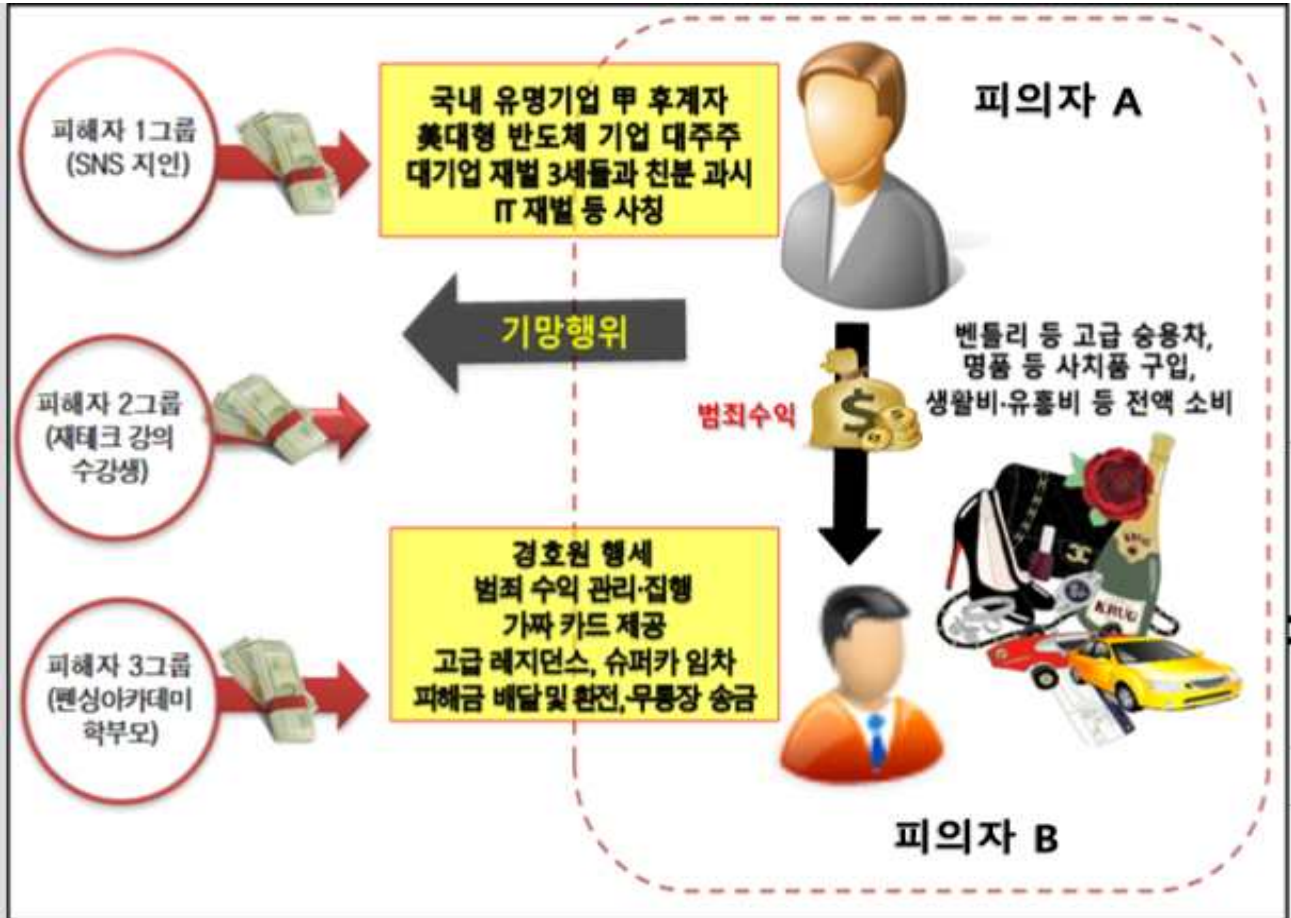
3 수사 경과

- '23. 11. 10. 피의자 A 구속 송치
- '23. 11. 14. ~ 피의자, 추가 피해자 등 조사, 포렌식 결과, 통화내역 등 분석, 범죄수익 흐름 파악을 위한 압수 및 계좌추적
- '23. 11. 21. 검찰, 피의자 B 구속영장 청구 (11. 23. 발부)
- '23. 11. 27. 피의자 A에 대한 추가 사기 범행,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인지
- '23. 11. 29. 피의자들 각각 구속기소
※ 스포츠 스타 C 관련 부분은 경찰 수사 중

4

수사 결과 및 의의

● 범행 구조도



- 이 사건은 피의자 A가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마치 '평범한 사람은 얻지 못할 다시 없을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처럼 꾸미고, 피의자 B는 수행비서 또는 경호원 행세를 하며 거액을 편취한 사안임
- 피해자들은 피의자 A의 SNS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하여 모집한 수강생, 피의자 A의 지인이 운영하는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임
- 피의자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의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미래 대비 자금의 거의 전부를 빼앗았고, 이들 중 일부는 고리의 대출까지 받아 결국 피해금 1억 원 기준,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게 되는 등의 피해도 추가로 입음

- 검찰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A에 대한 사기 구속 사건을 송치받아 계좌·통신·포렌식 내역을 분석하고, 주요 참고인·피해자 기타 다수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철저하게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치밀하게 범리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범죄를 밝혀냄으로써 피의자들을 엄단하였음
- 피의자 B는 수사개시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피의자 B가 ①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 중 21억 원 이상을 송금받아 관리, ② 피해금 중 일부는 현금·미화로 전달받아 환전 및 ‘쪼개기 송금’, ③ 고급 레지던스, 슈퍼카를 자기 명의로 단기 임차하여 A에게 제공, ④ 자신 명의 신용카드를 ‘한정 발급되는 한도 무제한 카드’로 보이도록 ‘튜닝’하여 제시, ⑤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을 밝혀내어 직접 구속하였음
- 또한, ① 계좌·포렌식 내역 분석으로 피의자 A가 이 사건 이전에 범했던 별도 사기 범행까지 신속히 파악하고(피해자 4명, 약 2억4천만 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② 남성 주민등록증 위조 및 행사, ③ 甲기업 대표이사 명의 ‘도급계약서’ 위조 및 행사 등 사회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추가 범죄를 규명하였음

<A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

①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과시하여 피해자 현혹

- i) ▲ 피해금으로 국내 최고층 빌딩 소재 레지던스를 3개월 임차(월세 3,500만 원)하여 피해자들을 초대하고, ▲ 슈퍼카 여러 대를 임차하여 피해자들을 태우거나, ▲ 후계자를 사칭한 기업 소유 5성급 호텔 VIP룸 및 펜트하우스에 피해자들을 초청하여 ‘투어’를 시키고, ▲ 피해자들에게 수백만 원대 와인, 명품을 선물함

- ii) ▲ 경호원 4~5명(1인당 월급 1,500만 원)을 상시 대동하거나, ▲ 기자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이용하여 ‘숨겨진 재벌 기습 인터뷰’ 상황극을 하고, ▲ 평범한 신용카드를 ‘튜닝’하여 대부호 상대로 한정 발급되던 사용 한도 무제한의 ‘가짜 블랙 카드’를 만들어 명품샵 등에서 사용함
- iii) ▲ 뉴욕에서 태어나 외국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이고, ▲ 어색한 ‘콩글리쉬’ 사용을 하며 미국 교포 행세를 하였으며, ▲ 유명 기업인들과의 여행담, 펜싱·승마 등 호화 취미생활을 지어내어 자랑하고 다니거나, ▲ 美 유명 반도체, 전기차 회사의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 에 자신의 기술이 들어갔다며 IT 재벌 행세를 함

② 성별을 바꿔가며 ‘피해자 맞춤형’ 사기 범행

- i) ‘즉석 만남앱’을 통해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20대 여성’ 행세를 하며 교제를 빙자하여 ‘임신·결혼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행사하는 등 주변에 남성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음

4

향후 계획

-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음
- 경찰과 협의하여 공범 및 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음 ■■■